2026년 8월 23일 주일 1부 예배 [허남길 목사]

요한삼서 1:9 ~ 15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 받으라"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배우고 닮아가려고 애쓰는 편일까요, 아니면 악한 것에 더 쉽게 물드는 편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 속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나 직장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진실한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나도 저분의 삶과 행동을 본받아야겠다." 하는지 아니면 이 악한 세상 저 사람처럼 고함치고 속이고 거짓말하며 살아야 하나, 라는 모습을 닮아가려 하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선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악한 것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평생동안 선한 것을 본받아 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삼서는 가이오에 대한 개인편지로 가이오가 다니는 교회에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성도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 반면에 교회의 선한 것을 따르고 순회전도자들을 섬기고 돕고 성도들을 화목 되게 하는 선한 것을 따르는 데메드리오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요한이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는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으뜸, 첫째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고 특별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목회자인지 평신도 인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서 우리들이 사도인데, 당시 순회전도자였던 사도들을 교회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니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라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도 생각도 말도 구별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니 뭐...세상 사람들은 다 그리 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서 예수님을 배워가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주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직장도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깐 구별된 목적과 마음과 말고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빛이 되는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요한을 맞아 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행한 일을 통해서 가서 책망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이는 출교를 시켜야 되겠죠. 둘째로 디오드레베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악한 말은 사실이 아닌 모함으로 사도 요한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나쁜 짓하고 간음하고, 했단다...이렇게 헐뜯는 거에요 요한보다 인정을 받아야 하고 높임을 받아야 하니 이렇게 헐뜯는 거죠. 혹시 셀에서 직장에서 남보다 더 존경 받고 으뜸이 되고자 남을 모함하고 헐뜯고 이것을 악한 말이라 고해요. 세상에는 이러한 말이 많죠.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듣고 넘어가고 또 넘어가요 이게 모함하는 말이에요. 으뜸 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기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복종하고 겸손해서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사는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말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살고 인정해주면 고맙고 인정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꼭 인정받으려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해야 하니까요 여기에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형제들은 나그네 된 순례자 전도자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도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즘 식으로 말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쉽게 비방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이 되는 겁니다. 부산에 있을 때 제게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부교역자가 있었는데 상당히 시간적으로 배려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뒷통수를 쳤어요 그러니 마음이 섭섭하더라구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은 제가 잘해줬는데 왜 저한테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 것 가지고 했니, 아니요 주님 주신 것으로 했습니다. 내 것 가지고 했으면서 왜 니가 섭섭하냐, 말씀이 되요 안되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것이군요, **아 그렇구나 모든 게 주님의 것이니깐 주님 것으로 배려하는 것은 내가 축복이고 어떤 사람도 배려하고 사랑하고 도와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대하지 말자** 이 자체가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응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 섭섭한 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내에게도 적용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냐, 하지 말자,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믿지,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적용을 하니깐 섭섭병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배려하고 사랑한 것밖에 없구나. 사람이요 친구에게 밥을 한 다섯 번 사면 친구에게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다섯 번이나 샀는데 한 번도 안사네..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들어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 밥 사지 마세요. 괜히 밥 사서 힘들고 괴롭고 왜 그럽니까...다섯 벗이든 열 번이든 내가 살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밥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그 사람 계속 사랑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섬기고 살아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구원했듯이 그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에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려 사랑하시는 그를 나 같은 죄인이 뭔데 평가하고 저럴 수가 있나라며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제가 뭔데 하나님이 세운 종을 비방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성도나 목회자나 내 기준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해서 내가 비방하고 욕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구나 그 다음부터 어떤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를 들었고 본 것으로 비판하고 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중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잖아요, 어떻게 쉽게 비방하고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섭섭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고 깨달음도 되고 변화된 축복이 되었습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 받지 말고"** 악한 것이 디오드레베 같이 하나님의 진리도 사모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스스로 존경받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이게 악한거에요. 하나님께 영광은 관심도 없고 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해서 복음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화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면 아멘. 회개할 것 회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선한 것이 뭐에요. 진리를 사랑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어서 복음 전하고 끝까지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게 선한 것이죠.

언젠가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라는 관점으로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양한 관점으로 읽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믿음을 어떻게 보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병든 사람이든지 귀신들린 사람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살리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모든 면에서 선하게 사랑하면서 살리기 위해서 만나시더라구요.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한동안은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선한 것이 뭘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세워주고 어떻게 선하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노력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좀 변하더라구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이 생기니깐 너무 감사하더라구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는 제자 되는 축복된 성도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악한 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죠. **12절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매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아지고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고 변해되어지고 진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아멘. 많은 사람에게도 존경 받고 믿어지고 진리에게서도 증거 받는 성도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내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내 주위에 진리대로 행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다. 불행한 거죠. 내가 진리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아멘. 진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13절,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14절,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 글로 쓰는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노라 하죠. 15절, **"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친근감 있게 친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서 너도 문안해라. 교제하라 하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과 참된 진리 안에서의 교제도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 필요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신뢰가 되는 교제 은혜가 되는 교제 이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이 셀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총동원 셀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셀 안에서 진실한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식사도 하면서 오신 분들이 세상 모임과 다르다. 너무 편하고 너무 은혜 되고 내가 꼭 셀 교회에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셀이 활성화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나눔 질문1 : 말씀에 관련된 자신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2 :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된 부분, 도전이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3 :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세요!

온누리교회 055)386-0091